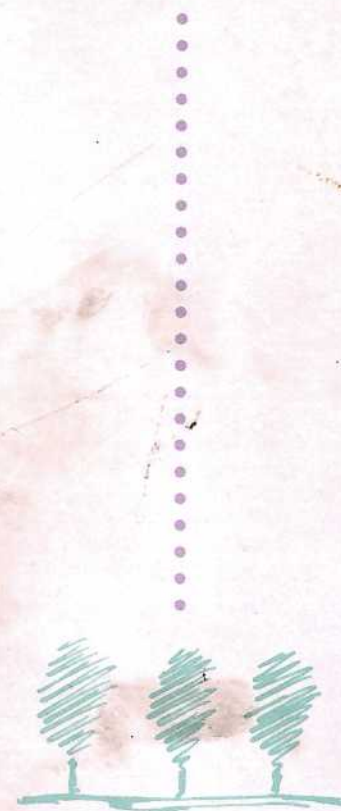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호
(제101호~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호 1994. 10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운동사랑방

차 례

격려글	암울한 우리 시대에 단비를 재촉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 · 함세웅(신부)	/ 3
머리글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 5
색 인	<인권하루소식> 합본 II호 색인	/ 267
부 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I호 색인	/ 295

제101호(94.2.5, 토) / 29

- 1면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
 - 황석영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알기 위해 방북'
- 2면 · 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

제102호(94.2.8, 화) / 31

- 1면 ·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
 - 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
 -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전치6주 부상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 2면 ·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추진중, 일본 오사카 인권단체들
 -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
 -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
 - 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 유엔 인권상 9명 수상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
- 3·4면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1-6일)

제103호(94.2.15, 화) / 35

- 1면 · 유엔인권위도 중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
 - 일본검찰 전범책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
- 2면 ·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전노협」·「인의협」등 치료제한 사례접수
 - 외국인 노동자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2·3면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13일)

제104호(94.2.16, 수) / 38

- 1면 ·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
- 2면 · 서준식씨의 안희권검사 고발상
- 3·4면 · 인터뷰-민중의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

제105호(94.2.17, 목) / 42

- 1면 · 경찰, 광주지역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해당자 30%
- 2면 ·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교육」 국제회의, 캐나다 오타와 대학
 - 민중의교훈련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 '국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특별보고
 -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
 - 유엔 북경여성대회 소식(2) 유엔, 나라별 보고서 작성요령 발표
 - 필리핀 인권단체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선언문 작성, 의회채택 요구중

제106호(94.2.18, 금) / 44

- 1면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
 - 통일원 40년만에 가족상봉 김영태씨 허락 뒤 비전향이유로 취소
- 2면 ·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
 - 민정련 회원 또 연행,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보
- 2·3면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선의문

제107호(94.2.19, 토) / 47

- 1면 · 검찰, 증거없이 김삼석씨 15년·김은주씨 8년 구형, 피고인 "조작사건" 주장 판결 주목돼
 -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1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
- 2·3면 · 김삼석·김은주 변론요지서(요약)

제108호(94.2.22, 화) / 50

- 1면 ·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등 이적표현물 인정
 - 최내무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국회본회의 답변
- 2·3면 ·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

제109호(94.2.23, 수) / 53

- 1면 ·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6월에 4년 집유
 - '장애우 대학' 6기 개설, 3월 18일부터 13주
 -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등 9명 연행 확인
- 2·3면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14-20일)

제110호(94.2.24, 목) / 56

- 1면 ·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대회준비
 -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등
- 2면 ·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
 - 민간단체 700여명 사상 최대,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 정부 대표,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시배를 위해 필요하다'-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 국제인권단체 "장의균·김성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3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인문,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인문-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한국정부 대표 발인문-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제111호(94.2.25, 금) / 59

1면 ·국가보안법 이종기준,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제, 「희망터」만 구속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상전'이어야, 심포지움

제112호(94.2.26, 토) / 60

1면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요식행위 반발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도규액, 「나눔의 집」에 전달예정
2면 ·단체탐방 11-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제113호(94.3.2, 수) / 65

1면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김삼석씨 7년 김은주씨 집행유예 선고
·「한국노인의 전화」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담·제공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도유시다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2·3면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7호-112호)
4·5면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21-27일)

제114호(94.3.3, 목) / 70

1면 ·AI 실종, 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롬비아 첫 대상국가로 선정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교 폐쇄 잇달아 농촌황폐화 부추켜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 대책수립 요구, 태평양유족회
2면 ·'성희롱 항의' 시위, 서울대 성희롱내책위
·법무부 행정법 대폭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
·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4월 25일-5월 2일

제115호(94.3.4, 금) / 72

1면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
·미군 또 택시기사 수감채워 강제연행, 동두천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실종'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
2·3면 ·주·월간지 기사색인

제116호(94.3.5, 토) / 75

1면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 10명 또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2면 ·'국보법은 기본권 제한 범주 넘어', AI 한국지부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 국보법 철폐', 민가협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총련 밝혀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
3면 ·단체탐방 1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117호(94.3.8, 화) / 78

1면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7차 여성노동자대회

·정신대문제 다룬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
2면 ·94년 여성노동자선언
2·3면 ·인터뷰-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

제118호(94.3.9, 수) / 81

1면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
·시민들이 직접 재판 감시한다, 이순심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정든 학교, 온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분교 폐교, 등교거부 자체학습
2면 ·AI,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남북대화 진전위해 국보법 철폐 요구, 북한 외교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AI 보고서 목차)

제119호(94.3.10, 목) / 83

1면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50차 인권위원회 폐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해투
·사과원 관련 문용천 집유
2면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
3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알라 라소 선출

제120호(94.3.11, 금) / 86

1면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상담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보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
2면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통신 늘어나, 특정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 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제121호(94.3.12, 토) / 88

1면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등
·여성학 공개강좌,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대협, 국회내 정신대특위 설치요구
2면 ·단체탐방 13-천주교 인권위원회

제122호(94.15, 화) / 90

1면 ·'고난' 새대표에 신경하 목사
·대법원 노중선씨에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유죄'
·정신대 전금화 할머니 사망,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해야
2면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오사카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울들어 3명째

제123호(94.3.16, 수) / 92

1면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
·각지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려,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 학생들 마을회관에서 공부, 두밀분교
- 2면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 등
-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이 노사관계 안정의 지름길, 전해투 시위

제124호(94.3.17, 목) / 94

- 1면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
- 2면 ·「검열반대국제센터」, 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 세계인권단체 총람 발간, 캐나다 Human Rights Internet
-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피해당사자 번역
-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정치적 살해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

제125호(94.3.18, 금) / 96

- 1면 ·「여연」 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씨 선정/인터뷰-홍미영씨
- 2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등 6개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제126호(94.3.19, 토) / 98

- 1면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일빛출판사 이성우사장 연행
-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
- 해고자, 출근투쟁·텐트농성 확산
- 2면 ·단체탐방 14-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제127호(94.3.22, 화) / 100

- 1면 ·대구지역 여성단체 첫 여성의 날 기념행사
- 우조교동기 일일주점 열려
-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여성의 전화등 17단체 참여
- 2면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장애와 인권’ 정책강좌
- 「인천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

제128호(94.3.23, 수) / 102

- 1면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씨 첫 공판
-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울들어서만 32명
- 2면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경험나누기, 한·일 법률가 교류
-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여성대회’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 요구
- ‘일본 전쟁책임 확실하’, 정대협·전국연합
-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

제129호(94.3.24, 목) / 104

- 1면 ·‘재일한국정치범 석방·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단식농성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
- 학대당하는 아동 ‘아내구타 가능성 높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 힘출판사 압수수색, 대표 연행
- 2면 ·문국진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신체감정
- EU, 외국인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
-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 조정희씨 단식해제

제130호(94.3.25, 금) / 106

- 1면 ·‘미군범죄 신고센터’, 전국 13개 지역
- 희망새 단원등 6명 영장없이 불법연행,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 2면 ·PC통신 김형렬씨 공판연기
- ‘산재없는 세상만들기’ 그림전, 4월27일-5월3일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위해
- ‘여성고용악화’ 인식공유, 여성지도자·정무장관 간담회
-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124개역 편의시설 실태조사
- 부산불교인권위 1주기 법회
- 사노맹 재건기도현의 정찬호씨등 3명 집유

제131호(94.3.26, 토) / 108

- 1면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
- 2면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
-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제132호(94.3.29, 화) / 110

- 1면 ·김영삼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법연 5주년 기념심포지움 예정
-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의석 20% 할당제 주장
- 2면 ·경찰 또 불법연행·감금, 역사노사건 4명
-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
-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제133호(94.3.30, 수) / 112

- 1면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 석방 요구
- “장애인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 “혁사노 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함평기씨 밝혀
- 2면 ·1달제 학부모교사 두밀국교 학생 교육
-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제134호 (94.3.31, 목) / 114

- 1면 ·노태훈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
- 혁사노 사건 4명 구속, “잠안재우고 수사중”
- 2면 ·인터뷰 :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50차 인권위원회 평가
-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 아시아학생연합,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제135호(94.4.1, 금) / 119

- 1면 ·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복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
 - 가수들 '희망새'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
 - '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 4월 9일까지
- 2·3면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113호-134호)

제136호(94.4.2, 토) / 122

- 1면 · 고 김남주 49재 추모의 밤, 시운 대각사·대구 민예총
 -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민우여성학교 개설, 민우회
 - 법조개혁안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위해 제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2면 ·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제137호(94.4.6, 수) / 124

- 1면 ·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해투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수사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형평성에 크게 배치"
 - 일빛 힘 대표 석방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 재독통일운동가 이영빈 복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 거부
- 2·3면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민주법연 심포지움(지상중계)

제138호(94.4.7, 목) / 127

- 1면 ·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 2면 · 경찰, 두말국교 학부모 조사
 - 국보법 폐지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
 - 사형제도 폐지단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
 - 출소장기수 김광삼 사망, 4·1 음성 꽃동네
 -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제139호(94.4.8, 금) / 129

- 1면 ·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끼치지 않은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1년, 전해투
 - 민가협 30차 목요집회
- 2면 ·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구금자 석방촉구
 - 인터뷰 : 전해투 대외협력부장 안경호(29, 한국공항 해고노동자)

제140호(94.4.9, 토) / 131

- 1면 ·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무죄확정,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 인혁당 사형집행자 추모제, 서대문 옛사형터
- 2면 · 단체탐방 16-희년선교회

제141호(94.4.12, 화) / 133

- 1면 ·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문국진 모임」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
- 2면 · 민법연 『민주법학』 7호,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

- 의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출소장기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한진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시위

제142호(94.4.13, 수) / 135

- 1면 ·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씨 2차공판,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양심선언 조성희 항소심 첫 공판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2면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씨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개원

제143호(94.4.14, 목) / 137

- 1면 ·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성 기대"
 -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 정대협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각성 계기
- 2면 ·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및 선거감시단 활동
 -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 연계 선거운동
 - 아시아워치, 국보법등 거론

제144호(94.4.15, 금) / 139

- 1면 ·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 인터뷰:김기웅 순경
- 2면 ·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제145호(94.4.16, 토) / 141

- 1면 ·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
 - 여성이 쓴 여성이야기
 -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 희망새 3명 또 연행
- 2면 ·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인터뷰: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 교수
 - 해고자 텐트농성 확산중, 현재 20여곳

제146호(94.4.19, 화) / 143

- 1면 ·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
 -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총장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조작의혹 제기
- 2면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 '해고자 원직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해투 위원장단 10명
 - '휠체어 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20일 장애인의 날
 -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

제147호(94.4.40, 수) / 145

- 1면 ·7월말 아·태 AI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 등 준비
 - 울 세번째 출판인 구속, '일터' 박치관씨
 -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
- 2면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
 - '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
 - 민가협 단식농성 풀어
 - 양심선언 조정희씨 '유죄'
 - 인터뷰: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제148호(94.4.21, 목) / 147

- 1면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직접 체험
 - 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
 -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 고발건
 -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 두밀분교
- 2면 ·앤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업서 발간
 - 앤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꾼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제149호(94.4.22, 금) / 149

- 1면 ·"북한인권 거론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일집회
- 2면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150호(94.4.23, 토) / 151

- 1면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방해도
 -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요구
 -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
- 2면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체
 - 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

제151호(94.4.26, 화) / 153

- 1면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 원진직업병 대책 촉구, 원진비대위 결의대회
 - 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
 - 한진그룹 고위 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 2면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
 - 출소장기수 가족제회운동 추진, 양심수 후원회 6차 총회, 권오현 회장 재선출

제152호(94.4.27, 수) / 155

- 1면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5월 6-13일 추방주간 선포
 - 동의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
 -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도
- 2면 ·고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앞에 사죄' 요구
 - 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환경운동연합

- 산보센터 건립위한 그림전
- 아시아 선교대회,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

제153호(94.4.28, 목) / 157

- 1면 ·김형렬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서울고법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필요"
 -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
- 2면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정책토론회, 장애우연구소
 -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여성민우회등 주최
 - 편의시설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유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제154호(94.4.29, 금) / 159

- 1면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일집회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 '5월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
- 2면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확대조정위원회 열려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제155호(94.4.30, 토) / 161

- 1면 ·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 1일
 -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 2면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토론회,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
 - 대법원,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제156호(94.5.3, 화) / 165

- 1면 ·'94년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
 -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어린이 날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
- 2·3면 ·<인권하루소식> 4월분 총목차(119호-164호)

제157호(94.5.4, 수) / 168

- 1면 ·'변호사 자격심사, 집건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
 -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 2면 ·60여년간 사용한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직업병도 수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제158호(94.5.6, 금) / 170

- 1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장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해고 철회'
 - 아·태지역 AI회의, 7.28-31 북경여성대회등 논의
 -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정대협 117차 수요시위
- 2면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제159호(94.5.7, 토) / 172

- 1면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여성의 전화등 가정폭력 추방캠페인

-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노동절 104주년 맞아, 22일째 단식중
- 2면 ·단체탐방 1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160호(94.5.10, 화) / 174

- 1면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대책위등 공청회
- 2면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담쌓기도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
- 일 법무상 '중군위안부는 공장', 정대협 해임요구
-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악화,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 호소

제161호(94.5.11, 수) / 176

- 1면 ·"만삭일 때도 구타" 이순심씨 남편친구 증인, 아들도 정상참작 호소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
-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씨,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 2면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등 3만건 전산화 완료

제162호(94.5.12, 목) / 178

- 1면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행사위
-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 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
- 2면 ·김삼석·김은주씨 항소심 1차공판
- 복지 비상결의대회, '자기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

제163호(94.5.13, 금) / 180

- 1면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목요집회, 양심선언자 제도적 보호 절실
- 2면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
- '남아공 선거는 인류양심의 승리', 인권운동 사랑방 장소영씨 선거감시단 활동 마쳐
- 김기웅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 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

제164호(94.5.14, 토) / 182

- 1면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희망세 첫 공판
- 2면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
-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
- 불교인권상에 정혜숙·서준식씨 수상
- 양심선언 이우형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행사, 명동성당

제165호(94.5.17, 화) / 184

- 1면 ·529명 석탄일 가석방, 행정성적·복역기간등 '종합적 고려'
-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 전해투 "노총해체"등 주장
- 2면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

-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제166호(94.5.19, 목) / 186

- 1면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보역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 원진 환자 또 10명 발생, 울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
- 윤금이 살해범 마를, 천안교도소에 수감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 2면 ·단체탐방 20-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제167호(94.5.20, 금) / 188

- 1면 ·노·경총 임금합의 철회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
- 원진비대위 '돈 몇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 2면 ·19일 고 김광삼씨 49재
- '보육은 남녀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 활동 본격화
-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제168호(94.5.21, 토) / 190

- 1면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
-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 부산 불교인권위
-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요구,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윤상원상 수상자, 정광훈씨·극단 토박이
- 2면 ·단체탐방 21-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제169호(94.5.24, 화) / 192

- 1면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 압력, 필리핀 외국인 참가거부
-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여전히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
- 2면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여명에 질문서 발송
- 김귀정 추모사업회 발족, 평전발간·장학기금 마련
- 원진기계 약64억원에 매도, 원진비대위 수입철회 촉구
-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 보장'
-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

제170호(94.5.25, 수) / 194

- 1면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
- "널리 알려진 사실 복원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등 모집
-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
- 2면 ·출소장기수 이세균씨에 대한 조치서
-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 해설·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제171호(94.5.26, 목) / 196

- 1면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방문,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 문제등 토론계기
 -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
 - 전교조 창립5돌 행사,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
- 2면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
 - 「희망새」 석방위한 서명·모금 사업진행
 - 두밀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 김상근목사
 -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소송

제172호(94.5.27, 금) / 198

- 1면 ·가평군 행정관서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 부당한 압력,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
 - 목적수행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민가협 목요집회
- 2면 ·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 75%가 백인, 36명 사형자중 흑인 28명
 -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중 사망 16명
 -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제173호(94.5.28, 토) / 200

- 1면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
 - 인권이사회 3자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위해 출국
- 2면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등 문화예술계 성명
 - 민가협, 한충련 출범식 참가
 -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일본 「서순택씨를 구원하는 회」
 - 제2기 모니터 교육, 여성 민우회
 -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

제174호(94.5.31, 화) / 202

- 1면 ·두밀분교 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주민 교육장등 면담 한밤중 전화등 중지요구
 -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사대화제의
- 2면 ·노동부 '해고자 복직위해 노력' 발표, 전혜투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
 - 민교협등 22개단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
 -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

제175호(94.6.1, 수) / 207

- 1면 ·각계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
 -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
 -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여성상담심포지움'
 - 이순심씨 증인신문
 - 정치·종교·법조·문화계등 '5월광장 어머니회'초청인단 참여
- 2·3면 ·「인권하루소식」 5월분 총목차(155호-174호)

제176호(94.6.2, 목) / 210

- 1면 ·ILO 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

-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 전노대 결의대회 제3차 개임금지·구속수배에 공동대응키로
- 2면 ·120차 정대협 수요시위
 -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
 -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열려

제177호(94.6.3, 금) / 212

- 1면 ·「5월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 예정,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계기
 - 「한국인권협」 20일 창립
 - 고 박창수 열사 공판 열려
 -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이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개최
 - 여성상담심포지움 마련, 여성의 전화
- 2면 ·아시아 핫-라인 긴급호소, 스리랑카 4년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31명의 학생

제178호(94.6.4, 토) / 214

- 1면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5월광장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문국진 모임」
 -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2면 ·'박래전열사' 추모식, 마식모란공원 참배
 -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씨 징역 3년, 집유3년 선고
 - 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

제179호(94.6.8, 수) / 216

- 1면 ·'오월광장어머니'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 각계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청원
- 2면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회결의등, 정대협
 - 자보노조 간부 5명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 노총도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

제180호(94.6.9, 목) / 218

- 1면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
 -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
- 2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 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
 -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

제181호(94.6.10, 금) / 220

- 1면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 2면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자보노조 위원장
 - 고 이래선 1주기 추모제
 - 고 이한열 7주기 추모제, 연세대 교정

제182호(94.6.11, 토) / 222

- 1면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
 -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토론회

-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
- 2면 ·“미완성대본등 국가보안법 7조 시추” 회망세 2-3년 구형
- 사노맹 조직책'에 2년 구형
- 백산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전 책까지 문세삼아
-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외교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등 요구
- 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

제183호(94.6.14, 화) / 224

- 1면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힌 나뉘,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 동행
-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
- 2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 사형제도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
-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제184호(94.6.15, 수) / 226

- 1면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대구·마산·포항·마산 5개지역 20여명 일제히 연행
- 2면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1년 옥살이 김선명씨
-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벽아씨 공판
- 이순심씨 10년 구형,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제185호(94.6.16, 목) / 228

- 1면 ·안재구씨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메카시즘적 행위”
- 예술의 자유, 안정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회망세단원 3명에 유죄선고
- 2면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주장, 경기교육감 두말리주민과 간담회
-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제186호(94.6.17, 금) / 230

- 1면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 “희망과 연대의 시작”, 5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
- 2면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일심단결회
- 안재구씨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 2·3면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 등 필요

제187호(94.6.18, 토) / 233

- 1면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 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
- 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
- 2면 ·단체탐방 23-노동인권회관

제188호(94.6.21, 화) / 235

- 1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인권교육 등 사업 결의
- 2면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기독교회관
- 재일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 일본지역 어머니회

제189호(94.6.22, 수) / 237

- 1면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
- 문국진씨 공판 7개월만에 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 발간, 피해자가족모임등 계획
- 방사성폐기물 반대시위,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
- 한진그룹해고노동자 면담요구, 연행돼 즉심판결
- 2면 ·“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 구속에 성명
- 전국교육대회, 앰네스티 한국지부
- 전국철거민연합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양심수후원회

제190호(94.6.23, 목) / 239

- 1면 ·재일교포학생 폭행사건 방지 대회, 도쿄조선문화회관서
- 철도·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 2면 ·'고난모임' 실무간사 수련회
-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
-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
- 부산지역 인권단체협의회체등 논의중
-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
- 원진노동자의 삶 담은 원진이력서 2판발간 예정
- 특수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실질적인 무상교육등 요구

제191호(94.6.24, 금) / 241

- 1면 ·언론의 남측권 폭력배 만들기 규탄, 민가협 목요집회
-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요구
-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도
- 2면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중심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 3면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 시작”
- 전노대 긴급성명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

제192호(94.6.25, 토) / 244

- 1면 ·전노대 연대파업돌입 통고, 경찰의 노동자연행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고발
- 중앙노동위·서울지하철에 직권중재 통고, 지하철노조 거부
- 2면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변

제193호(94.6.28, 화) / 246

- 1면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런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2면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요약)

제194호(94.6.29, 수) / 248

- 1면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정부의 지하철 파업 지연에 분노
- 2면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요구, 문국진 모임 탄원
- 시행령 개정없이 '벽지학교' 폐교,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

·조선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

제195호(94.6.30, 목) / 250

- 1면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 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 2면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 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 철창에 갇힌 희망세에 실행선고

제196호(94.7.1, 금) / 255

- 1면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한준수 전연기군수 고심에서도 유죄판결
 - 구국전위 관련 4명 추가구속
- 2·3면 ·「인권하루소식」 6월분 총목차(175호-195호)

제197호(94.7.2, 목) / 258

- 1면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
 -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 박채홍씨등 2명 연행
 - 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 2면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대동우회(구 전국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제198호(94.7.5, 화) / 260

- 1면 ·채소자 청원권 및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
 - 전노대 제3차 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
- 2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이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

제199호(94.7.6, 수) / 262

- 1면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 모임
 -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 안해, 정부 위안부 대책
- 2면 ·광주전남연합소속 오병윤씨등 3명 구속, 범민련 관련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
 -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

제200호(94.7.7, 목) / 264

- 1면 ·16개 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요구,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 2·3면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인권하루소식

94년 2월

(제101호 - 제112호)

재판을 모니터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사회적 지명도나 유명세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자본주의적인 홍보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다.

그러나 훗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인간 삶의 조건들을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업적들을 상고해 보면, 단언컨대 시작부터 여론의 각광을 받고 짧은 시간내에 단판승부식으로 일의 결말이 매듭지어졌던 경우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때 한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는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권하루소식」의 제200호 발행은 문제제기의 출발과 그 지속성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최전선에서 열악한 무기체제와 충분치 못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인권운동 사랑방의 노고에 머리숙여 존경을 표한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권하루소식」의 애독자로서 몇가지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실보도 및 이와 관련된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를 게재하는 한편, 일정기간 단위로 이들 기사에 대한 색인을 게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애독자들을 위한 자료축적과 자료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색인작성작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시켰으면 한다. 가령 「인권하루소식」은 재판을 모니터하는 역할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판내용은 물론이고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이름을 명기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모니터된 재판결과만을 별도로 색인작업화함으로써 특정판사가 승진되거나 승진물망에 오를 때 해당판사의 재판성향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침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신문에 안난 '소식'지 특종들

김 당 「시사저널」 기자

아마도 나는 「인권하루소식」을 가장 열심히 읽는 기자 독자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소식」이 내게 정례적으로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주간지로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갖고 있지만, 인력 구조나 취재 환경의 여건상 정부 부처를 고정적으로 출입하면서 취재할 수가 없는 우리 형편에서 「소식」은 여러 통의 전화질과 발로 뛰는 수고를 대신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알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출입처 및 출입기자단 제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종합 일간지(또는 방송·통신)의 기자로서 '상시 출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불문율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거나 날마다 기사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지방승이나 교방승 그리고 口일보 기자들이 출입은 하지만 출입기자단에는 끼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와 언론사의 '공생 관계'와 악습은 머지 않아 깨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같은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이다(서준식 선배가 보면 "왜 그런 불공정과 위헌성을 고치려 들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맡기느냐"고 질책하셨지만 머지 않아 그 일을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어쨌든 나는 「소식」의 일단짜리 공판 안내기사에서부터 불처벌의 문제를 다룬 기획 기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로부터 많은 수고를 덜고 있다. 또 창간전의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사건에서부터 두말분교 폐교사태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도했던 많은 기사의 아이템 선정과 그 취재에서 「소식」지의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인권하루소식」 제200호를 발행하기까지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대와 질책을 소중히 여겨 더욱 발전하는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진 일동

「사랑방」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소식을 전한 많은 소중한 '특종 거리'를 게을름과 무관심으로 놓치고 있다.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 용인' 발언과 경찰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최근 정부가 A규약을 몰래 제출한 것 등에 이르기까지. 고백하건대 '낙종'의 첫째 이유는 게을름 때문이지만 둘째는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국방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회에 개인적 바람을 전한다면 「소식」이 단발성 인권침해 고발기사보다는 '기획 기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성의 사회, 인권보장을 외치는 '소식'활동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반인권적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참새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내게는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구독료 납부라는 의무만 남은 셈이다.

단순한 문제제기보다 해결방안의 모색 및 사실이 게재되었으면

이승철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은 날이 갈수록 수많은 '반인권적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량을 적은 지면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선별해 게재하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신문에 다 보도된 사례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의 발굴을 통해 인권운동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아울러 단순한 문제제기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해결의 모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면을 대폭 늘리고(재정부담이 크겠지만 적어도 4쪽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날의 소식중 중요한 것은 「인권하루소식」 자신의 입장이 게재된 '사실'이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었으면 한다.

<색인순서>

269 / 인권일반

270 / 인권단체 - <인권협> <민가협> <유가협> <민변> <민주법연> <KNCC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 <고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대협>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지탁연> <문국진모임> <삼청교육대> <대한변협,서울지방번호사회> <5.18계승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277 / 법제 / 사형제도 / 고소고발 / 손해배상청구소송

278 / 고문·기혹수사, 경찰폭력 / 의문사 / 김기응씨사건

279 / 국가보안법 - <국보법일반> <노태훈씨사건> <방북사건, 황석영씨사건> <사과원> <김삼석씨 남매사건> <민정련> <혁사노> <사노맹> <PC통신> <희망새> <출판> <구국전위>

281 / 불처벌 / 5월광장어머니회 / 정신대

283 / 양심수 / 장기수

284 / 양심선언 / 주한미군·윤금이사건

285 / 두말분교 / 전교조

285 / 노동일반 / 산재·원진레이온 / 전해투 / 외국인노동자 / 지하철·철도파업 / 한국자보

288 / 장애인(일반/취업/접근권/교육) / 노인 / 아동

288 / 여성일반 / 아내구타 / 이순심씨사건 / 성희롱·성폭력

290 / 북한인권

291 / 국제 - <국제일반> <유엔인권위> <인권고등판무관> <동티모르> <국제앰네스티> <여성> <아태지역인권위크샵> <사회발전정상회담> <아시아워치>

293 / 인권정기간행물 색인

<범례>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 45

; (94년 2월 18일자 기사, 『<인권하루소식> 합본 II』의 45쪽)

인권일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 45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94.2.18 / 45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94.2.22 / 5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심포지움/94.2.25 / 59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돕읍시다/94.3.2 / 65

·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4월 25일-5월 2일/94.3.3 / 71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94.3.19 / 98

- 고 김남주 49재·추모의 밤, 서울 대각사·대구 민예총/94.4.2 / 122
-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94.4.14 / 137
-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94.4.16 / 141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94.4.16 / 141
-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94.4.16 / 142
- 인터뷰: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 교수/94.4.16 / 142
-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94.4.20 / 146
- 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94.4.21 / 147
- 동의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94.4.27 / 155
- 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환경운동연합/94.4.27 / 156
-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등 3만건 전산화 완료/94.5.11 / 177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 183
- 529명 석탄일 가석방, 행정성적·복역기간등 ‘종합적 고려’/94.5.17 / 184
-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관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94.5.17 / 185
-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94.5.20 / 188
- 윤상원상 수상자, 정광훈씨·극단 토박이/94.5.21 / 190
-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94.5.21 / 190
-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인·사진등 모집/94.5.25 / 194
-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94.6.2 / 211
- 「한국인권협」 20일 창립/94.6.3 / 212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94.6.9 / 219
- 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94.6.11 / 223
-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 230
- 전국철거민연합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깎이고 있다’/94.6.22 / 238
- 부산지역 인권단체협의체등 논의중/94.6.23 / 240
-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등/94.6.24 / 241
-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요약)/94.6.28 / 247
-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94.6.28 / 247
-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에서 민간단체모임/94.7.6 / 262

인권단체 : 인권협/민가협/유가협/민변/민주법연/KNCC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불교인권위/고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정대협/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민우회/지탁연/문국진모임/삼청교육대/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5·18계승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교조

<인권단체 일반>

-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94.3.11 / 86
- ‘고난’ 새대표에 신경하 목사/94.3.15 / 90
-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94.3.17 / 94

-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94.5.14 / 183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 183
-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94.5.21 / 190
-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 김상근목사/94.5.26 / 197
-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94.6.1 / 207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인권교육등 사업 결의/94.6.21 / 235
-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기독교회관/94.6.21 / 236
- 부산지역 인권단체협의체등 논의중/94.6.23 / 240
- 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94.2.5 / 30
- 단체탐방 11-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94.2.26 / 61
- 단체탐방 12-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94.3.5 / 77
- 단체탐방 13-천주교 인권위원회/94.3.12 / 89
- 단체탐방 14-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94.3.19 / 99
-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94.4.2 / 123
- 단체탐방 16-회년선교회/94.4.9 / 132
-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94.4.15 / 140
-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94.4.22 / 150
- 단체탐방 1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94.5.7 / 173
- 단체탐방 20-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94.5.19 / 187
- 단체탐방 21-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94.5.21 / 191
- 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94.6.4 / 215
- 단체탐방 23-노동인권회관/94.6.18 / 233
-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대동우회(구 전국삼청교육대진상규명투쟁위원회)/94.7.2 / 259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하게 사전준비/94.2.17 / 43
- 민간단체 700여명 사상최대,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제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 58
-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제50차 유엔 인권위 소식(2)/94.3.10 / 84
-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94.4.16 / 141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94.4.29 / 159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94.4.29 / 160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 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94.5.13 / 181
-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반박보고서 작성방해’ 의혹/94.5.20 / 188
- 각계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94.6.1 / 207
- ‘5월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 예정,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회기/94.5.26 / 212
- 「한국인권협」 20일 창립/94.6.3 / 212
- 5월광장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준비/94.6.4 / 214
- ‘오월광장어머니’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94.6.8 / 216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인권교육 등 사업 결의/94.6.21 / 235
-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94.6.29 / 248

·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 모임/94.7.6 / 26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94.2.18 / 44
 ·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 국보법 철폐', 민가협/94.3.5 / 76
 ·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94.3.17 / 94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94.3.18 / 97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회당새·민가협/94.3.26 / 108
 · 가수들 '회당새'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94.4.1. / 119
 · 민가협 30차 목요집회/94.4.8 / 129
 ·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94.4.15 / 139
 ·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94.4.15 / 140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94.4.16 / 141
 ·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94.4.19 / 143
 · 민가협 단식농성 풀어/94.4.20 / 146
 ·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 양심수 후원회 6차 총회, 권오현 회장 재선출/94.4.26 / 154
 ·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94.4.29 / 159
 ·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목요집회, 양심선언자 제도적 보호 절실/94.5.13 / 180
 ·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민가협 목요집회/94.5.27 /
 · 민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94.5.28 / 201
 · 한국-아르헨티나 교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94.6.10 / 220
 · "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 구속예 성명/94.6.22 / 238
 ·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94.6.22 / 238
 · 언론의 남총련 폭력배 만들기 규탄, 민가협 목요집회/94.6.24 / 241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유가협>
 1012·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94.2.5 /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94.3.26 / 108
 ·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94.3.29 / 110
 · 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앞에 사죄' 요구/94.4.27 / 156
 ·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행사, 명동성당/94.5.14 / 183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 186
 · 김귀정 추모사업회 발족, 평전발간·장학기금 마련/94.5.24 / 193
 ·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94.5.25 / 194
 ·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26 / 197
 ·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열려/94.6.2 / 211
 · 고 박창수 열사 공판 열려/94.6.3 / 212
 · '박래진열사' 추모식, 마석모란공원 참배/94.6.4 / 215
 · 고 이한열 7주기 추모제, 연세대 교정/94.6.10 / 221
 ·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 225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 2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94.2.22 / 51
 · 단체탐방 1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94.5.7 / 173
 ·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94.6.1 / 207
 ·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94.6.4 / 214
 ·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 230
 ·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변/94.6.25 / 245
 ·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94.7.6 / 262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인>
 · 김영삼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법연 5주년 기념심포지움 예정/94.3.29 / 110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민주법연 심포지움(지상중계)/94.6 / 125
 · 민법연 『민주법학』 7호,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94.4.12 / 134
 ·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94.4.22 / 150
 ·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94.5.14 / 18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교협인권위>
 ·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94.4.2 / 123
 · 사형제도 폐지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94.4.7 / 128
 ·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등 모집/94.5.25 / 194
 ·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 김상근목사/94.5.26 / 197
 ·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94.6.2 / 211
 ·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도/94.6.24 / 241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런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94.6.28 / 246
 ·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94.6.28 / 247
 ·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요약)/94.6.28 / 247
 · 3% 가이드라인 철폐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94.7.2 / 259
 <인권운동사랑방>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94.2.16 / 38
 · 서준식씨의 안희권 검사 고발장/94.2.16 / 39
 ·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 '국제동향 월레브리핑'에서 특별보고/94.2.17 / 43
 ·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국제정보브리핑' 모임/94.5.4 / 169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 183
 <불교인권위원회>
 ·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등/94.3.12 / 88
 · 부산불교인권위 1주기 법회/94.3.25 / 107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 183
 ·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94.5.21 / 190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고난>
 · '고난' 새대표에 신경하 목사/94.3.15 / 90

-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 등/94.3.16 / 93
-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94.4.1 / 119
-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 거부/94.4.6 / 124
- 동의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94.4.27/ 155
-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94.5.25 / 194
- '고난모임' 실무간사 수련회/94.6.23 / 240
-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94.6.30 / 251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미군범죄 신고센터', 전국 13개 지역/94.3.25 / 106
-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94.4.2 / 122
-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4.23 / 152
- 대법원, 윤금이씨 살해법 15년 징역 확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94.4.30 / 162
- 윤금이 살해법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94.5.19 / 186
-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94.6.23 / 240
-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6.30 / 250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94.2.5 / 29
- 유엔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94.2.15 / 35
-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94.2.15 / 35
- 민간단체 700여명 사상 최대,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 58
- 단체탐방 1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94.3.5 / 77
- 정신대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 78
- 정대협, 국회내 정신대특위 설치요구/94.3.12 / 88
- 정신대 전금화 할머니 사망,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해야/94.3.15 / 90
-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94.3.17 / 95
-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94.3.19 / 98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94.3.24 / 104
- 정대협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각성 계기/94.4.14 / 137
-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94.4.28 / 157
-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정대협 117차 수요시위/94.5.6 / 170
- 일 법무상 '종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94.5.10 / 175
- 120차 정대협 수요시위/94.6.2 / 211
-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회결의등/94.6.8 / 217
-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94.6.23 / 240
-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94.6.30 / 251
-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 안해, 정부 위안부 대책/94.7.6 / 262
- <한국여성의 전화>
- 여성상담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94.3.11 / 86

-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 21일 결성/94.3.18 / 97
-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여성의 전화등 17단체 참여/94.3.22 / 100
- '인천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94.3.22 / 101
-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94.3.26 / 109
-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94.4.23 / 151
- 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94.4.26 / 153
-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5월 6-13일 추방주간 선포/94.4.27 / 155
-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여성의 전화등 가정의 해 맞아 가정폭력 추방캠페인/94.5.7 / 172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94.5.11 / 176
-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94.5.13 / 180
- 여성상담심포지움 마린, 여성의 전화/94.6.3 / 212
-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94.6.29 / 249
-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학 공개강좌, 한국성폭력상담소/94.3.12 / 88
- '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 4월 9일까지/94.4.1 / 119
- 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94.4.23 / 152
- <한국여성민우회>
-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94.3.16 / 92
- 민우여성학교 개설, 한국여민회/94.4.2 / 122
-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29일 여성민우회등 주최/94.4.28 / 158
-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94.5.24 / 192
-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94.5.26 / 196
- 제2기 모니터 교육/94.5.28 / 201
-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일 '여성상담심포지움'/94.6.1 / 207
- 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94.6.4 / 215
- 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94.6.18 / 233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을,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94.6.28 / 246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94.5.19 / 186
- '보육은 남녀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94.5.20 / 189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7개월만에 공판개개,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신체감정/94.3.24 / 105
-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94.4.19 / 144
-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94.6.4 / 214
- 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94.6.9 / 219
-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 발간, 피해자가족모임등 계획/94.6.22 / 237
-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요구/94.6.24 / 241
-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요구, 문국진 모임 탄원/94.6.29 / 249

<전국삼청교육동우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요구,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94.5.21 / 190
-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94.7.2 / 259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94.3.9 / 82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등 6개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94.3.18 / 97
-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경험 나누기, 한·일 법률가 교류/94.3.23 / 103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수사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형평성에 크게 배치"/94.4.6 / 124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94.4.13 / 135
-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94.4.14 / 137
-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94.4.26 / 153
-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94.5.4 / 168
-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94.5.24 / 193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94.5.31 / 203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도/94.4.27 / 155
- 단체탐방 21-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94.5.21 / 19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 대학' 6기 개설, 3월 18일부터 13주/94.2.23 / 53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장애와 인권' 정책강좌/94.3.22 / 101
-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124개역 편의시설 실태조사/94.3.25 / 107
- "장애인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94.3.30 / 112
- '휠체어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함께걸음 시민대행진」/94.4.19 / 144
-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94.4.20 / 145
- 인터뷰: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94.4.20 / 146
-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타고 체험/94.4.21 / 147
-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정책토론회/94.4.28 / 158
- 편의시설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유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94.4.28 / 158
-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치료는 낡은 것", 토론회, 격리야만 사회복지 전제해야/94.6.30 / 250

<전교조>

-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94.5.3 / 16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 168
- 전교조 창립5돌 행사,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94.5.26 / 196
-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94.5.31 / 203

법제일반/사형제도/고소·고발/손해배상소송

<법제일반>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 45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94.2.18 / 45
-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94.3.3 / 71
-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94.3.30 / 113
- 법조개혁안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94.4.2 / 122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향권씨/94.4.13 / 136
- 민주당 『경찰백서』출간, "중립적인 경찰성 기대"/94.4.14 / 137
-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94.4.14 / 137
-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94.4.26 / 153
-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94.5.4 / 168
-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94.5.24 / 193
-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94.6.4 / 214
-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 230
-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94.6.25 / 245

<사형제도>

- 사형제도 폐지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94.4.7 / 128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94.4.19 / 144
-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94.4.22 / 149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94.5.13 / 181
-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 75%가 백인, 36명 사형자중 흑인 28명/94.5.27 / 199
-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촉구/94.6.8 / 217
- 사형제도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94.6.14 / 225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94.7.7 / 262

<고소·고발>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94.2.5 / 29
- 일본검찰 전범책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94.2.15 / 35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94.2.16 / 38
- 서준식씨의 안희권 검사 고발장/94.2.16 / 39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 108
-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94.3.29 / 111
-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94.4.30 / 161
-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94.5.4 / 168
-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대책위등 공청회/ 94.5.10 / 174
-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94.5.11 / 177
-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행사위/94.5.12 / 178

-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94.5.14 / 183
-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94.5.17 / 184
-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여명에 질문서 발송/94.5.24 / 193

<손해배상청구소송>

-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94.2.8 / 31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 186
-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26 / 197
- 고 박창수 열사 공판 열려/94.6.3 / 212
-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열려/94.6.2 / 211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 229

고문·가혹수사, 경찰폭력/의문사/김기웅씨사건

<고문·가혹수사, 경찰폭력>

-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전치6주 부상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94.2.8 / 31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94.2.16 / 38
- 서준식씨의 안희권 검사 고발장/94.2.16 / 39
- 최내무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국회본회의 답변/94.2.22 / 50
-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집견방해등/94.2.24 / 56
-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94.2.26 / 60
-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총련 밝혀/94.3.5 / 76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 108
- 경찰 또 불법연행·감금, 역사노사건 4명/94.3.29 / 111
- 역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94.3.31 / 114
-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94.3.31 / 115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대한변협/94.4.6 / 124
-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94.4.12 / 133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94.4.12 / 133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행권씨/94.4.13 / 136
-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성 기대"/94.4.14 / 137
-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94.4.15 / 139
- 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조작의혹 제기/94.4.19 / 143
-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 고발건/94.4.21 / 147
-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방해도/94.4.23 / 151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 186
-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민가협 목요집회/94.5.27 / 198
-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94.6.9 / 218
-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94.6.14 / 225

-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벽아씨 공판/94.6.15 / 227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 229
- 방사성폐기물 반대시위,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94.6.22 / 237
- 언론의 남총련 폭력배 만들기 규탄, 민가협 목요집회/94.6.24 / 241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런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94.6.28 / 246

<의문사>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94.3.26 / 108
-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94.3.29 / 100
-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94.4.26 / 154

<김기웅씨사건>

-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무죄확정,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94.4.9 / 131
-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94.4.15 / 139
- 인터뷰:김기웅 순경/94.4.15 / 139
- 김기웅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94.5.13 / 181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일반/노태훈씨사건/방북사건, 황석영씨사건/사회주의과학원사건/
김삼석씨남매사건/민정련사건/역사노/사노맹/PC통신사건/희망새/출판/구국전위

<국가보안법 일반>

-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6월에 4년 징역/94.2.23 / 53
- 국제인권단체 "장익균·김성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 58
-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원문,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원문-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 58
- '국보법은 기본권 제한 범주 넘어', AI 한국지부/94.3.5 / 76
-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 국보법 철폐', 민가협/94.3.5 / 76
- 남북대화 진전위해 국보법 철폐 요구, 북한 외교부/94.3.9 / 82
- 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94.3.10 / 84
-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94.3.10 / 84
-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등/94.3.12 / 88
- 대법원 노중선씨에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유죄'/94.3.15 / 90
-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94.3.17 / 94
- 국보법 폐지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94.4.7 / 128
-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94.4.7 / 128
- 아시아워치, 국보법등 거론/94.4.14 / 137
-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94.4.19 / 143
- 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조작의혹 제기/94.4.19 / 143
-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94.4.29 / 159
-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94.6.17 / 231
-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94.6.17 / 232

·광주전남연합소속 오병윤씨등 3명 구속, 범민련 관련/94.7.6 / 261

<노태훈씨 사건>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94.2.8 / 31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94.3.17 / 94
·노태훈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다이론'으로 유죄선고/94.3.31 / 114

<방북사건, 황석영씨 사건>

·황석영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알기 위해 방북'/94.2.5 / 29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등 이적표현물 인정/94.2.22 / 50
·"널리 알려진 사실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94.5.25 / 194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등 문화예술계 성명/94.5.28 / 201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사과원 관련 문용찬 집유/94.3.10 / 83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94.6.2 / 210

<김삼석씨 남매 사건>

·검찰, 증거없이 김삼석씨 15년·김은주씨 8년 구형, 피고인 "조작사건" 주장 판결 주목돼/94.2.19 / 47
·김삼석·김은주 변론요지서(요약)/94.2.19 / 48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94.2.22 / 50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김삼석씨 7년 김은주씨 집행유예 선고/94.3.2 / 65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94.3.31 / 115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 고발건/94.4.21 / 147
·김삼석·김은주씨 항소심 1차공판/94.5.12 / 179
·목적수행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94.5.27 / 198

<민정련 사건>

·경찰, 광주지역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94.2.17 / 42
·민정련 회원 또 연행,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94.2.18 / 45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94.2.19 / 47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 박채홍씨등 2명 연행/94.7.2 / 258

<혁사노사건>

·경찰 또 불법연행·감금, 혁사노사건 4명/94.3.29 / 111
·"혁사노조직은 오래전에 해체되었다", 함평기씨 밝혀/94.3.30 / 112
·혁사노 사건 4명 구속, "잠안재우고 수사중"/94.3.31 / 114

<사노맹>

·사노맹 재건기도회의 정찬호씨등 3명 집유/94.3.25 / 107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94.6.11 / 223

<PC통신사건>

·국가보안법 이중기준,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제, '희망터'만 구속/94.2.25 / 59
·컴퓨터 통신에 있던 국보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94.3.11 / 86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통신 늘어나, 특정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94.3.11 / 87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94.3.12 / 88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울들어 3명제/94.3.15 / 91

·PC통신 김형렬씨 공판연기/94.3.25 / 107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94.4.7 / 127

·김형렬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94.4.28 / 157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씨, 징역1년 집유2년 선고/94.5.11 / 176

<희망새 사건>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등 9명 연행 확인/94.2.23 / 53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94.3.2 / 65

·희망새 단원등 6명 영장없이 불법연행,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94.3.25 / 106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 108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 석방 요구/94.3.30 / 112

·가수들 '희망새'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일집회/94.4.1 / 119

·희망새 3명 또 연행/94.4.16 / 141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희망새 첫 공판/94.5.14 / 182

·'희망새' 석방위한 서명·모금 사업진행/94.5.26 / 197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94.6.4 / 214

·예술의 자유, 안정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단원 3명에 유죄선고/94.6.16 / 228

·"미완성대본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94.6.11 / 223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94.6.30 / 251

<출판>

·일빛출판사 이성우사장 연행/94.3.19 / 98

·힘출판사 압수수색, 대표연행/94.3.24 / 104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94.3.26 / 109

·일빛·힘 대표 석방요구, 43명 출판인 성명/94.4.6 / 124

·올 세번째 출판인 구속, '일터' 박치관씨/94.4.20 / 145

·백산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전 책까지 문제삼아/94.6.11 / 223

<구국전위>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대구·마산·포항·마산 5개지역 20여명 일제히 연행/94.6.15 / 226

·안재구씨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94.6.16 / 228

·안재구씨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94.6.17 / 231

·구국전위 관련 4명 추가구속/94.7.6 / 261

불처벌/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정신대

<불처벌 일반>

·정부 대표,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 58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94.2.24 / 58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94.3.18 / 97
 - 인혁당 사형집행자 추모제, 서대문 옛사형터/94.4.9 / 131
 -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94.4.14 / 138
 -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94.4.22 / 149
 -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도/94.4.27 / 155
 -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담쌓기도/94.5.10 / 175
 -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행사위/94.5.12 / 178
 -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94.5.14 / 183
 -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94.5.17 / 185
 -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94.5.17 / 185
 -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요구,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94.5.21 / 190
 -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94.5.25 / 194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94.5.31 / 203
 -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토론회/94.6.11 / 222
 -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눠,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94.6.14 / 224
 -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 225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 / 231
 -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94.6.30 / 251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94.7.5 / 261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94.7.6 / 261
-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94.4.29 / 159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94.4.29 / 160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방문,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 문제등 토론회기/94.5.26 / 196
 - 정치·종교·법조·문화계등 「5월광장 어머니회」초청인단 참여/94.6.1 / 207
 - 5월광장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94.6.4 / 214
 - ‘오월광장어머니’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인권침해자 처벌위한 국제연대활동의 연장선”/94.6.8 / 216
 -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94.6.9 / 218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94.6.10 / 220
 -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토론회/94.6.11 / 222
 -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눠,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94.6.14 / 224
 -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 225
 -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94.6.15 / 227
 - “희망과 연대의 시작”,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94.6.17 / 230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 / 231
- <정신대>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94.2.5 / 29
 - 유엔인권위도 중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94.2.15 / 35
 -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94.2.15 / 35

-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모금액, 「나눔의 집」에 전달예정/94.2.26 / 60
-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 대책수립 요구, 태평양유족회/94.3.3 / 70
-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94.3.5 / 76
- 정신대문제 다룬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 78
- 정대협, 국회내 정신대특위 설치요구/94.3.12 / 88
- 정신대 전금화 할머니 사망,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해야/94.3.15 / 90
-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94.3.19 / 98
-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전국연합/94.3.23 / 103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94.3.24 / 104
-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정대협 117차 수요시위/94.5.6 / 170
- 일 법무상 ‘중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94.5.10 / 174
-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회결의등/94.6.8 / 217
-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94.6.30 / 251

양심수/장기수

<양심수>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94.2.18 / 44
-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오사카/94.3.15 / 91
- ‘재일한국정치범 석방·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단식농성/94.3.24 / 104
-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94.4.19 / 143
- 엠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94.4.21 / 148
-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4.5.28 / 201
-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94.6.11 / 222
- 재소자 청원권 및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94.7.5 / 260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94.7.7 / 262

<장기수>

- 통일원 40년만에 가족상봉 김영태씨 허락 뒤 비전향이유로 취소/94.2.18 / 44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94.3.18 / 97
- 출소장기수 김광삼 사망, 4.1 음성 꽃동네/94.4.7 / 128
-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출소장기수 여성 본인의사에 맡겨야/94.4.12 / 134
-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94.4.22 / 149
-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6차 총회/94.4.26 / 154
-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94.5.19 / 186
- 19일 고 김광삼씨 49재/94.5.20 / 189
-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94.5.25 / 195
- 이세균씨에 대한 조치서/94.5.25 / 195
- 해설;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94.5.25 / 195

- 고 이래선 1주기 추모제/94.6.10 / 221
-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94.6.15 / 227
-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양심수후원회/94.6.22 / 238
-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94.6.30 / 251

양심선언/주한미군·윤금이사건

<양심선언>

- 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94.2.8 / 31
-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해당자 30%/94.2.17 / 42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94.2.18 / 45
-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94.2.19 / 47
-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94.3.23 / 103
- 조정희씨 단식해제/94.3.24 / 105
-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94.3.26 / 109
-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첫 공판/94.4.13 / 135
-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94.4.16 / 141
- 양심선언 조정희씨 '유죄'/94.4.20 / 146
- 서울고법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필요"/94.4.28 / 157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94.5.6 / 171
-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목요집회, 양심선언자 제도적 보호 절실/94.5.13 / 180
- 양심선언 이우형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94.5.14 / 183
-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씨 징역 3년, 징유3년 선고/94.6.4 / 215
- 한준수 전연기군수 고심에서도 유죄판결/94.7.1 / 255

<주한미군·윤금이사건>

-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94.2.16 / 38
- 미군 또 택시기사 수갑채워 강제연행, 동두천/94.3.4 / 72
-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전국 13개 지역/94.3.25 / 106
-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94.4.2 / 122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수사권행사 시정촉구/94.4.13 / 135
-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4.23 / 152
- 대법원,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94.4.30 / 162
-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94.5.19 / 186
-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94.6.23 / 240
-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6.30 / 250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94.7.6 / 261

두밀분교/전교조

<두밀분교>

-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교 폐쇄 잇달아 농촌황폐화 부추켜/94.3.3 / 70
-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분교 폐교, 등교거부 자체학습/94.3.9 / 81
- 학생들 마을회관에서 공부/94.3.16 / 92
- 1달째 학부모교사 두밀국교 학생 교육/94.3.30 / 113
- 경찰, 두밀국교 학부모 조사/94.4.7 / 128
-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94.4.21 / 147
-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94.5.11 / 177
-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94.5.17 / 185
- 두밀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94.5.26 / 197
-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폐운동 부당한 압력,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94.5.27 / 198
- 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주민 교육장등 면담 한밤중 전화등 중지요구/94.5.31 / 202
-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94.6.9 / 219
-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주장, 경기교육감 주밀리주민과 간담회/94.6.16 / 229
- 시행령 개정없이 '벽지학교' 폐교, 두밀분교 폐교철폐 소송/94.6.29 / 249
- 16개 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94.7.7 / 262

<전교조>

-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어린이 날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94.5.3 / 16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 168
- 전교조 창립5돌 행사,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94.5.26 / 196
-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94.5.31 / 203

노동-노동일반/산재·원진레이온/전해투/외국인노동자/지하철·철도파업/한국자보

<노동일반>

-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94.3.11 / 86
- 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 1일/94.4.30 / 161
- '94년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94.5.3 / 165
- 전해투 "노총해체" 주장/94.5.17 / 184
- 인권 B규약 가입 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 국내법규 개혁계기/94.5.28 / 200
- 인권이사회 3자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94.5.28 / 200
-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사대화제의/94.5.31 / 202
- ILO 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94.6.2 / 210
- 전노대 결의대회 제3차 개임금지·구속수배에 공동대응키로/94.6.2 / 210
-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자보노조 위원장/94.6.10 / 221
-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등 요구/94.6.11 / 223

-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기독교회관/94.6.21 / 236
-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94.7.1 / 255
-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94.7.2 / 258
- 전노대 제3차 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94.7.5 / 260
-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증징계 반대”/94.7.6 / 263
- <산재·원진레이온>
-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전노협」·「인의협」등 치료제한 사례접수/94.2.15 / 36
-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 10명 또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94.3.5 / 75
-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울들어서만 32명/94.3.23 / 102
- ‘산재없는 세상만들기’ 그림전, 4월27일-5월3일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위해/94.3.25 / 107
-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요구/94.4.23 / 151
- 원진직업병 대책 촉구, 원진비대위 결의대회/94.4.26 / 153
- 산보센터 건립위한 그림전/94.4.27 / 156
- 60여년간 사용한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직업병도 수출/94.5.4 / 169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94.5.10 / 175
-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 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94.5.12 / 178
- 원진 환자 또 10명 발생, 울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94.5.19 / 186
- 원진비대위 ‘돈 몇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94.5.20 / 188
- 원진기계 약64억원에 매도, 원진비대위 수입철회 촉구/94.5.24 / 193
-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94.6.9 / 219
-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94.6.11 / 222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94.6.22 / 237
- 원진노동자의 삶 담은 원진이력서 2판발간 예정/94.6.23 / 240
- <전국 금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94.3.10 / 83
-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 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94.3.11 / 87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이 노사관계 안정의 지름길, 전해투 시위/94.3.16 / 87
- 해고자, 출근투쟁·텐트농성 확산/94.3.19 / 98
- 단체탐방 14·전국 금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94.3.19 / 99
-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해투/94.4.6 / 124
- 꺼지지 않은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1년/94.4.8 / 129
- 인터뷰 : 전해투 대외협력부장 안경호(29, 한국공항 해고노동자)/94.4.8 / 130
-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94.4.9 / 131
- 한진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시위/94.4.12 / 134
- 해고자 텐트농성 확산중, 현재 20여곳/94.4.16 / 142
- ‘해고자 원직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해투 위원장단 10명/94.4.19 / 144
-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체/94.4.23 / 152
-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94.4.26 / 153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장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해고 철회’/94.5.6 / 170

-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노동절 104주년 맞아, 22일째 단식중/94.5.7 / 172
-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악화,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 호소/94.5.10 / 175
- 복직 비상결의대회, ‘자기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94.5.12 / 179
- 전해투 “노총해체”등 주장/94.5.17 / 184
- 노·경총 임금합의 철회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94.5.20 / 188
-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94.5.21 / 190
-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 보장’/94.5.24 / 193
-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94.5.24 / 193
-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94.5.28 / 201
- 노동부 ‘해고자 복직위해 노력’ 발표, 전해투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94.5.31 / 203
- 민교협등 22개단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94.5.31 / 203
- 각계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청원/94.6.8 / 216
- 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94.6.18 / 233
- 한진그룹해고노동자 면담요구, 연행돼 즉심판결/94.6.22 / 237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94.2.15 / 36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개원/94.4.13 / 136
-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94.6.14 / 225
- <철도·지하철 파업>
- 철도·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94.6.23 / 239
-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94.6.24 / 241
-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 시작”/94.6.24 / 242
- 전노대 긴급성명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94.6.24 / 242
- 전노대 연대파업돌입 통고, 경찰의 노동자연행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고발/94.6.25 / 244
- 중앙노동위·서울지하철에 직권중재 통고, 지하철노조 거부/94.6.25 / 245
-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94.6.29 / 248
-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 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94.6.30 / 251
- <한국자동차보험사건>
-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94.5.4 / 168
-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94.5.17 / 184
- 단체탐방 20·노동위 돈봉투사건과 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94.5.19 / 187
-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시대화제의/94.5.31 / 203
- 자보노조 간부 5명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 노총도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94.6.8 / 217
-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자보노조 위원장/94.6.10 / 221

장애인(일반취업/접근권/교육)/노인/아동

<장애인 일반>

- '장애우 대학' 6기 개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주간/94.2.23 / 53
-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우복지위로 대체, 요식행위 반발/94.2.26 / 60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 인권' 정책강좌/94.3.22 / 101
- "장애인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94.3.30 / 112
- '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94.4.20 / 146
- 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94.5.27 / 199
-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장애우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94.6.14 / 224
-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94.6.23 / 240
-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 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94.6.30 / 250

<장애인-취업>

-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94.4.28 / 158

<장애인-접근권>

-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124개역 편익시설 실태조사/94.3.25 / 107
- '휠체어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20일 장애인의 날/94.4.19 / 144
-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94.4.20 / 145
-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직접 체험/94.4.21 / 147
- 편의시설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유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94.4.28 / 158

<장애인-교육권>

- 특수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실질적인 무상교육등 요구/94.6.23 / 240

<노인>

- 「한국노인의 전화」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담·제공/94.3.2 / 65
-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94.3.31 / 114

<아동>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 168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94.5.4 / 169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94.5.11 / 176
-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94.5.13 / 180
-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94.5.14 / 182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94.5.19 / 186
- '보육은 남녀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94.5.20 / 189

여성-여성일반/아내구타/이순심씨사건/성희롱·성폭력

<여성 일반>

- '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94.2.5 / 29

-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대회준비/94.2.24 / 56
-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94.3.3 / 71
-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94.3.4 / 72
-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7차 여성노동자대회/94.3.8 / 78
- 94년 여성노동자선언/94.3.8 / 79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94.3.9 / 81
-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94.3.9 / 82
- 여성상담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94.3.11 / 86
- 여성학 공개강좌, 한국성폭력상담소/94.3.12 / 88
- 각지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려,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94.3.16 / 92
-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94.3.16 / 92
- '여연', 94년 여성운동상에 흥미영씨 선정/인터뷰-흥미영씨/94.3.18 / 96
- 대구지역 여성단체 첫 여성의 날 기념행사/94.3.22 / 100
- '인권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94.3.22 / 101
-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여성대회'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 요구/94.3.23 / 103
- '여성고용악화' 인식공유, 여성지도자·정무장관 간담회/94.3.25 / 107
-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의식 20% 할당제 주장/94.3.29 / 100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94.3.29 / 111
- '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94.4.1 / 119
- 민우여성학교 개설, 한국여민회/94.4.2 / 122
-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94.4.7 / 128
- 여성이 쓴 여성이야기/94.4.16 / 141
-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추방주간 선포/94.4.27 / 155
-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94.5.6 / 171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94.5.19 / 186
-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여전히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94.5.24 / 192
-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94.5.26 / 196
-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여성상담심포지움'/94.6.1 / 207
- 여성상담심포지움 마련, 여성의 전화/94.6.3 / 212
-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94.6.16 / 229
- 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94.6.18 / 233
-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94.6.23 / 240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94.6.28 / 246

<아내 구타>

- 학대당하는 아동 '아내구타 가능성 높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94.3.24 / 104
-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94.3.26 / 109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94.3.29 / 111
-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여성의 전화등 가정폭력 추방캠페인/94.5.7 / 172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94.5.11 / 176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94.5.14 / 182

<이순심씨 사건>

-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94.2.16 / 38
- 시민들이 직접 재판 감시한다, 이순심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94.3.9 / 81
-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94.3.18 / 97
-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여성의 전화등 17단체 참여/94.3.22 / 100
-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씨 첫 공판/94.3.23 / 102
-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씨 2차공판,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94.4.13 / 135
-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94.4.23 / 151
- 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94.4.26 / 153
-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친구 증언, 아들도 정상참작 호소/94.5.11 / 176
- 이순심씨 증인신문/94.6.1 / 207
- 이순심씨 10년 구형,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94.6.15 / 227
-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94.6.29 / 249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94.2.8 / 31
- '성희롱 항의' 시위, 서울대 성희롱대책위/94.3.3 / 71
-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당사자 번역/94.3.17 / 95
- 우조교습기 일일주점 열려/94.3.22 / 100
-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94.4.19 / 144
-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총장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94.4.19 / 143
- 성폭력 '지킴이' 지원 책도/94.4.23 / 152
-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여성민우회등 주최/94.4.28 / 158
-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토론회,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94.4.30 / 162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94.6.28 / 246

북한인권

-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94.2.8 / 32
- 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94.3.10 / 84
-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94.4.14 / 137
- 엠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94.4.21 / 148
- "북한인권 거론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94.4.22 / 149
-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요구,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94.7.7 / 262

국제-국제일반/유엔인권위/인권고등판무관/동티모르/국제엠네스티/여성/아태지역인권워크샵/ 사회발전정상회담/아시아워치

<국제일반>

-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추진중, 일본 오사카 인권단체들/94.2.8 / 32
-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94.2.8 / 32
- 유엔 인권상 9명 수상/94.2.8 / 32
- 인터뷰-민중의교훈런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94.2.16 / 40
- 민중의교훈런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94.2.17 / 43
- 필리핀 인권단체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선언문 작성, 의회채택을 요구중/94.2.17 / 43
-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94.3.3 / 71
- 「검열반대국제센터」, 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94.3.17 / 95
- 세계인권단체 총람 발간, 캐나다 Human Rights Internet/94.3.17 / 95
-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94.3.24 / 105
-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94.3.24 / 105
-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94.4.8 / 130
-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구금자 석방촉구/94.4.8 / 130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94.4.12 / 133
-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및 선거감시단 활동/94.4.14 / 138
-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94.4.14 / 138
-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 연계 선거운동/94.4.14 / 138
- 콜롬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94.4.21 / 138
- 아시아 선교대회,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94.4.27 / 156
-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확대조정위원회 열려/94.4.29 / 160
-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94.5.6 / 171
-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94.5.13 / 181
- '남아공 선거는 인류양심의 승리'/94.5.13 / 181
-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 활동 본격화/94.5.20 / 189
-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의 75% 백인, 36명 사형자중 흑인 28명/94.5.27 / 199
-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중 사망 16명/94.5.27 / 199
-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94.5.27 / 199
-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94.5.28 / 200
- 인권이사회 3자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94.5.28 / 200
-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4.5.28 / 201
- 아시아 핫-라인 긴급호소, 스리랑카 4년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31명의 학생/94.6.3 / 213
-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94.6.14 / 225
- 재일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94.6.21 / 236
- 재일교포학생 폭행사건 방지 대회, 도쿄조선문화회관서/94.6.23 / 239

-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중심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94.6.24 / 242
-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94.6.29 / 248
- 조선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94.6.29 / 249
-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가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94.7.5 / 261
-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모임/94.7.6 / 262
- <유엔 인권위원회>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94.2.8 / 32
- 유엔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94.2.15 / 35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1)-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 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 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민간단체 138개 700여명으로 사상 최대, 국내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언문,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언문,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94.2.24 / 58
- 정신대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 78
- 인터뷰-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94.3.8 / 79
-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50차 인권위원회 폐회/94.3.10 / 83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94.3.10 / 84
- 인터뷰-IS 사무소장 아드레안 졸라, 제50차 인권위원회 평가/94.3.31 / 115
- <인권 고등판무관>
-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94.3.10 / 83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소 선출/94.3.10 / 85
- <동티모르>
-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 압력, 필리핀 외국인 참가거부/94.5.24 / 192
-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94.5.26 / 197
-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위해 출국/94.5.28 / 200
-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개최/94.6.3 / 212
- <국제 사면위원회/국제 엠네스티/AI>
- AI 실종, 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롬비아 첫 대상국가로 선정/94.3.3 / 70
-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94.3.3 / 70
-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실종’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94.3.4 / 72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94.3.9 / 81
- AI,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94.3.9 / 82
-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AI 보고서 목차)/94.3.9 / 82
- 정치적 살해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94.3.17 / 95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94.3.22 / 101
-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 석방 요구/94.3.30 / 112

-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94.4.8 / 129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94.4.19 / 144
- 7월말 아·태 AI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 등 준비/94.4.20 / 145
- 엠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94.4.21 / 148
- 엠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94.4.21 / 148
- 아·태지역 AI회의, 7.28-31 북경여성대회등 논의/94.5.6 / 170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94.5.13 / 181
-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엠네스티/94.6.18 / 233
- 전국교육대회, 엠네스티 한국지부/94.6.22 / 238
- 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94.7.2 / 259
- AI 151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 요구/94.7.7 / 264
- <아태 지역인권워크숍>
-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94.2.17 / 43
- 아·태 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94.2.24 / 57
- <사회발전 정상회담>
- 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94.2.8 / 32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94.4.29 / 160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94.5.13 / 181
-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에서 민간단체모임/94.7.6 / 262
- <여성>
-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교육’ 국제회의, 캐나다 오타와 대학/94.2.17 / 43
- 유엔 북경여성대회 소식(2), 유엔, 나라별 보고서 작성요령 발표/94.2.17 / 43
-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94.3.5 / 76
- 아시아학생연합,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94.3.31 / 115
-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94.4.7 / 128
- <아시아워치>
- 아시아워치, 국보법등 거론/94.4.14 / 137
-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94.5.20 / 189

인권정기간행물 색인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1-6일)/94.2.8 / 33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13일)/94.2.15 / 36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14-20일)/94.2.23 / 54
-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21-27일)/94.3.2 / 68
- 주·월간지 기사색인/94.3.4 / 73
-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3.15 / 91

-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3.16 / 93
-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94.7.7 / 265
-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4.3.2 / 66
-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94.4.1 / 120
- <인권하루소식> 4월호 총목차/94.5.3 / 166
- <인권하루소식> 5월호 총목차/94.6.1 / 208
- <인권하루소식> 6월호 총목차/94.7.1 / 256

부록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색인

(준비 1호 - 제100호)